

KISTI Special - KOSEN

사람을 아는 재미, 지식을 아는 기쁨 **KŌSEN**

지식기반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의 활용은 성공의 필수 요건이다. 이 중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것이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 즉 “암묵적 지식”을 어떻게 끌어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 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KOSEN)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나가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의 사이버 휴먼네트워킹으로, 암묵적 지식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지식정보력을 높이는 글로벌 사이트다.

현재 코센에서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분석한 고급 기술동향 자료, 학회보고서, 첨단기술 보고서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코센 리포트’, 회원들끼리 과학기술 전문지식에 대해 문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What is?’ 등 다양한 코너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2006년 12월 현재 4만3천 명의 회원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2005 국제혁신박람회에 과학기술부 대표사업으로 참가하는 등 높은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호 KISTI SPECIAL에서는 코센의 추진 배경과 사업 내용, 우수활용사례, 코센카페의 활동내용, 칼럼 등 코센 사업의 전반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코센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인지, 방향성을 재고해 보고자 한다.



재분원인과학기술지협회 25주년 행사(2005.12)



매주진 코센회원 모임(2005.12.24)



코센축계 소프트웨어 대회(2006.9.16)



코센 전문기회의 (2006.12.17)

KOSEN이란?



글 _ 윤정선 선임연구원 · 정보시스템개발팀 · jsoon@kisti.re.kr

KOSEN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포 과학기술자들을 사이버 공간상에 하나의 고리로 묶기 위해 과학기술부의 ‘국제화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되었다. 코센은 국내·외의 연구자들이 서로 win-win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해외에 있는 과학기술자들은 코센을 통해 국내 과학기술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해외의 고급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내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국내의 과학기술자들은 해외 인력들이 제공하는 자료들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현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며, 국제 공동연구의 파트너를 찾는 등 네트워크를 통한 다각적인 교류가 가능하다. 또한, 과학기술자 개인으로서는 코센의 정보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결집된 역량은 국내 과학기술계로 유입 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코센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99년 7월 사이트를 오픈하였으며, 2006년 12월 현재 4만3천 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KOSEN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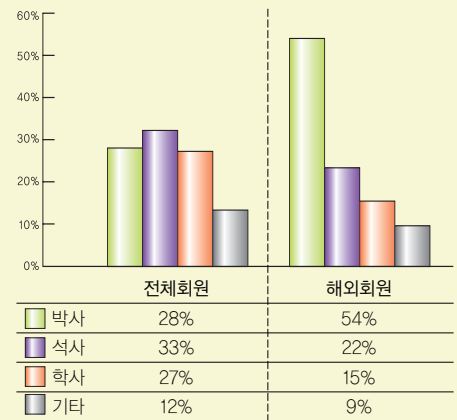
- 1999. 7. 한인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KOSEN) 오픈
- 1999. 11. 과학기술정보네트워크(OSTIN) 오픈
- 2000. 5. KOSEN과 OSTIN의 회원 DB 통합, 정보연계
- 2001. 12. KOSEN과 OSTIN 통합. www.kosen21.org 체제 가동
- 2003. 회원 2만 명 돌파
- 2004. 지식질의 서비스 "What is?" 본격화
- 2005. 국제혁신박람회 참가
- 2006. 회원 4만 명 돌파

회원 현황

2006년 12월 현재 코센 회원 수는 국내 37,969명, 국외 4,580명이다. 학력별 회원분포는 <그림 2>와 같다. 전체 회원의 61%가 석사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회원의 경우에는 53%가 박사학위 소지자이다. 또한 연구개발의 핵심인력이라 할 수 있는 30~40대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코센의 홈페이지 화면



<그림 2> 학력별 회원 통계

KOSEN의 서비스

코센의 주요 서비스는 아래와 같다.

- ▶ **코센 리포트** : 전문가가 추천하고 분석한 고급 기술 동향 자료, 학회보고서, 첨단기술 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코너이다. 코센에서 직접 생산하는 보고서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이다. 현재 YesKiSTi, LG상남도서관, 특허청, 등 여러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YesKiSTi 분석리포트 중 68%를 차지할 정도로 KISTI 고급지식정보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 ▶ **What is ?** : 과학기술 전문지식에 대해 문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코너로 전문가 회원이 많은 코센의 특 장점을 잘 살린 서비스이다. 연구개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이곳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특히 나노기술과 같이 다학제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 빛을 발하고 있다. 연간 질의응답 횟수가 3,700회에 달하고 있다.
- ▶ **Where is ?** : 회원들 간에 논문 등의 자료를 서로 교환하는 코너로 가장 많은 수의 글이 올라오는 곳이다. 연간 3만9천 개의 자료가 이곳을 통해 공유되고 있다.
- ▶ **코센 수집자료** : 재외과학관이 현지에서 수집한 최신 과학기술자료, 미의회보고서, 회원들이 직접 추천한 자료로 연구에 도움 되는 전문자료들로 이루어져 있다.
- ▶ **강의자료** : LG상남도서관의 제휴로 국내·외 유명대학의 강의자료 13만 건을 서비스하고 있다.

▶ **오픈랩** : 회원들이 직접 자신의 랩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2,340개의 국내·외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DB가 구축되어 있다.

▶ **커뮤니티** :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현재 25개의 카페가 운영 중이다.

▶ 그 외에 채용정보, 과학기술행사정보, 프로젝트공모정보, 해외과학기술뉴스, 논문모집공고 정보 등이 제공되고 있다.

KOSEN의 운영 전략

코센은 정보 수집, 생성, 웹사이트 개발 및 운영, 기획, 홍보 및 마케팅이 모두 한 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신규 서비스의 개설이나 회원 대상 이벤트의 실시, 회원 건의사항의 반영 등에 대해 매우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적은 수의 인력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관리업무의 자동화, 각종 통계기능 구현, 회원참여의 활성화 덕분이다. 코센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회원들의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 **코센 전문가 제도(241명)** : 코센의 전문지식정보 생성을 위해서 매년 새로이 코센 전문가 그룹을 위촉하고 있다. 신청 접수 후 분야별로 안배하여 코센 전문가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분석자료 추천, 코센 포트 검토, 지식질의 답변 업무를 의뢰하고 있다. 코센 전문가는 일종의 지식자문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매월 실적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있다.

▶ **회원 참여 분석 프로그램 운영** : 코센 회원들은 분석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코센 리포트를 집필할 수 있다. 자료의 선정, 보고서 작성, 내용 검토가 모두 코센 회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 **마일리지제도 운영** :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마다 마일리지 점수를 제공하고 있다. 누적한 마일리지는 코센 리포트를 이용할 때 사이버머니처럼 활용할 수 있다. 특정 서비스나 이벤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일리지 점수를 조정하며 운영하고 있다.



- ▶ **코센 알리기 메일** : 코센 회원이 지인들에게 코센을 직접 알리는 메일을 발송하고, 메일을 받은 회원이 코센에 가입할 경우 마일리지 점수를 제공하고 있다. 알리기 메일 템플릿을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손쉽게 메일을 보낼 수 있게 하였다. 이 기능을 통해 구전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다.
- ▶ **이벤트 개최** : 이벤트는 회원참여 활성화의 목적으로 연4회 정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개최했던 이벤트로는 회원정보갱신이벤트, 코센 널리 알리기 이벤트 등이 있다.
- ▶ **오프라인 모임 개최** : 온라인상에서 맺어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수의 오프라인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일 년에 한 번씩 회원가족행사인 코센 페스티벌을 1박2일로 개최하고 있으며, 코센 전문가 워크숍, 소프트볼대회, 카페 번개모임, 시삽모임 등 다수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 ▶ **우수 커뮤니티 시상** : 월 1회 우수 커뮤니티를 시상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회원들의 오프라인 모임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다.
- ▶ **우수 회원 시상** : 월 1회 분과별로 우수회원을 시상하고 있다. 우수회원은 코센 참여 실적에 따라 도움왕, 지식왕, 알림왕, 정보왕으로 구분하여 마일리지 점수에 기반하여 시상하고 있다.
- ▶ **'칭찬합시다' 게시판 운영** : 도움을 받은 회원이 도움을 준 회원을 칭찬하고 마일리지 점수를 선물할 수 있는 게시판이다. 코센 내에 서로 칭찬하는 문화가 활성화되어 연 1,300건의 칭찬 글이 올라오고 있다.
- ▶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와 공고한 관계 유지** : 해외회원들의 관심을 유지하고 신규 회원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총회에 참석하여 코센을 홍보하거나,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맺음말

코센은 그 동안 큰 성과를 거둔 성공사업으로 간주되고 있다. 코센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결과 투입 예산 대비 22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005년 2월 “(주)기술과 가치” 평가). 2005년에는 그 성과를 인정받아 국제혁신박람회에 과학기술부 대표사업으로 참가한 사례가 있다. 또한 2006년에는 ‘우수 해외인재 활용 확대’라는 꼭지로 제2기 과학기술부총리 체제의 5대 중점 사업에 포함되었다.

코센은 앞으로 보다 많은 해외 과학자들을 네트워크에 합류시키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한인 과학자 DB 구축에 더욱 힘쓰고 있다. 또한, 코센을 고급 지식정보의 요람으로 만들기 위해 전문가 회원을 활용한 분석보고서, 첨단기술 보고서 등의 분석정보 생산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산·학·연 과학기술 종사자들이 연구 과정에서 직면하는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 서로 자율적인 답변을 주고받는 ‘What is?’ 서비스도 보다 활성화시키고, 국내 연구실 디렉토리를 집대성하여 국내의 모든 랩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현재 2천3백 개의 랩 정보가 수집되어있다.

코센은 과학기술자 자신을 위한 네트워크이며 과학자 스스로가 함께 만들어 가는 커뮤니티이다. 일단 사람이 모이면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며 잠재력 또한 어마어마하다. 실제로 코센이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회원들의 기여도가 매우 컸다. ‘사람을 아는 재미, 지식을 아는 기쁨’을 모토로 유익함을 넘어서 코센은 기쁨과 재미가 되는 따뜻한 사이트가 되기 위해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